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국내 미술 거장들의 표지화... 여성동아 90주년에 다시 만나다	3면	동아일보 신문으로 다이어리를 꾸민다, DA-구 뉴스	4면	"<티처스>의 마스코트, 공부기와 독기를 소개합니다"
----------------	----	-------------------------------------	----	------------------------------	----	-------------------------------

## 제주에 모인 DAMG 2년 차 사원들...다시 새롭게, 리부트!

2022년 상반기 입사한 5개 직군 22명, 11월 8~10일 제주에서 리부트 캠프 진행



① 'Farewell' 리부트 캠프를 마친 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과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② 제주 감귤 농장에서 직접 만 곱을 바꾸니 가득 담은 참가자들 ③ 유튜브 콘텐츠 <한사랑산악회>를 패러디한 조별 미션 사진 ④ 참가자들이 제주 티 클래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11월 8일 제주국제공항 앞. 제주의 푸른 바다를 닮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설렘 가득한 표정의 동아미디어그룹(DAMG) 청춘 22명이 모였다. 바로 DAMG 리부트 캠프에 참여한 입사 2년 차 사원들이다. 2022년 상반기 DAMG의 기자, PD, CD, ND 그리고 미디어 경영직으로 각각 입사한 신입들이 약 1년 반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2022년 10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리부트 캠프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리부트 캠프는 주니어 사원들에게 지난 회사 생활을 되돌아보고, 입사 당시의 초심을 다시 생각하며 새로운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5개 직군·11개 실·국·본부 2년 차 사원 한자리에

22명의 사원들은 소속 회사와 직군을 고려해 총 5개 조로 나누어 활동했다. 참가자들은 ▲셋노랑과 새빨강 사이(감귤농장 체험) ▲티 클래스(다도 체험) ▲Go Back to

2022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박 3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참가자들은 2일차 'Go Back to 2022' 워크숍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Go back to 2022는 참가자들이 캠프 참가 전 부여받은 사전 과제를 자신이 속한 국·실·본부장 또는 부·팀장들과 함께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과제로 입사 이후 현재까지 회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보람 있고 의미 있었던 것 ▲업무적 고민 ▲앞으로의 커리어 목표에 대해 정리하고 선배와 대화한 내용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사전 과제 내용을 공유했고, 이 중 6명의 참가자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출판국 디지털플러스파트 이경은 기사는 차치완 출판국장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출판국의 과도기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등 현업에서 느끼고 민들에 대해 나누는 문답을 공유했다.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 문지은 매니저는 '비전공자 마케터의 스킬

업' 고민에 대해 선배와 나누는 대화를 소개했다. 인사 담당자로서의 고민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유쾌하게 담은 동아일보 인사팀 강흥민 매니저의 발표 영상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리부트 캠프의 특징은 과거 리부트 캠프보다 다양한 소속과 직군의 사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 11개 실·국·본부에 소속된 5개 직군 사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발휘했다. 편집국 디프린티어센터 임상아 ND는 "서로 직군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지만 같은 연차의 동기들과 업무 고민과 목표를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 팀 정시은 CD는 "회사 전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나'는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할지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앞선 두 차례 리부트 캠프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해 젊은 사원들과 함께 했다. 김 회장은 2, 3일차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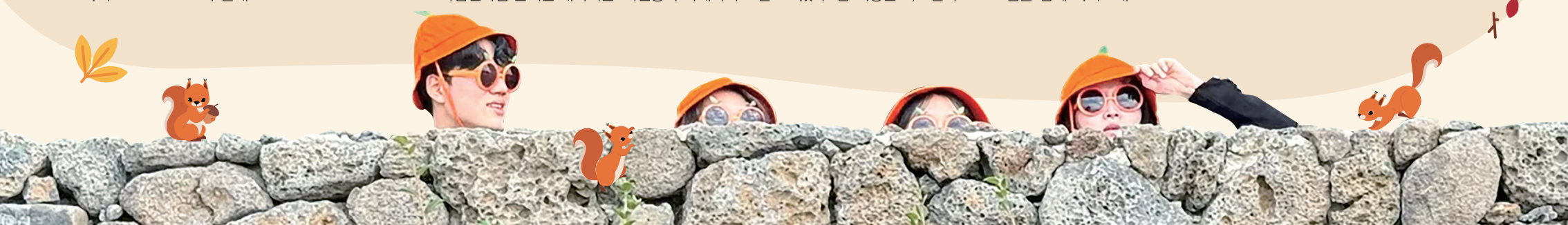
조 참가자들과 돌아가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제주의 자연과 맛에 빠진 '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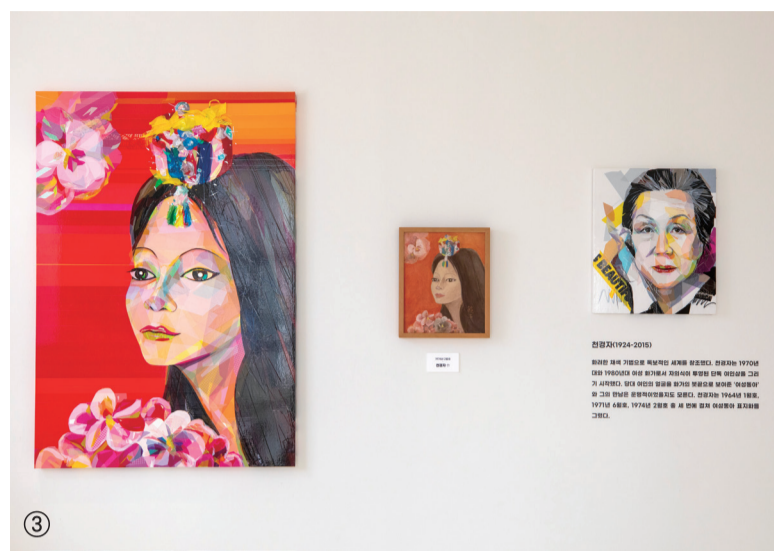
리부트 캠프는 워크숍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9일 감귤농장 체험에서 참가자들은 감귤 모자를 쓴 채 직접 곱을 따면서 가을의 제주 풍경 그리고 맛을 제대로 만끽했다. 다음날 티 클래스에서는 따뜻한 차를 직접 우려내 마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일정 중간중간 찍은 인증샷 미션에서도 '젠지(2세대)'다운 기발함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가을을 주제로 한 조별 사진 촬영에선 영화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패러디, 코믹 콘텐츠 <한사랑산악회> 패러디 등 다양한 연출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보비보 챌린지'와 'MZ 항공샷' 등 유쾌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제주에서의 추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① 11월 3일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왼쪽)가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② 관람객들이 김기창 화백이 그린 여성동아 1970년 2월호 표지화를 재해석한 참여형 작품을 직접 완성하고 있다. ③ 가운데는 화가 천경자가 그린 여성동아 1974년 2월호 표지화. 왼쪽은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이 천경자 표지화를 재해석해 만든 작품.

## 국내 미술 거장들의 표지화...여성동아 90주년에 다시 만나다

여성동아 90주년 기념 전시 <외출감행: 1933 신여성 여기, 오다> 11월 3~12일 개최



여성동아 창간 90주년 기념 전시 <외출감행: 1933 신여성 여기, 오다>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성동구 LES601 성수에서 개최됐다. 과거 여성동아 표지화 원작 43점과 재해석 작품 16점 등 총 59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여성동아는 1933년 1월 '신가정'이란 이름으로 발매된 창간호부터 1981년 3월호까지 206개의 잡지 표지를 당대 화백의 그림으로 장식했다. 동아일보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표지화 43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천경자 김기창 문학진 등 당대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그린 여성 인물화다.

'신가정' 창간호는 주부의 사회적 위상에 주목해 산수화의 대가이자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청전 이상범의 작품을 표지화로 실었다. 1967년 11월 '여성동아'로 복간한 후에는 한국 화단의 독보적인 화가 천경자와 한국 모더니즘 1세대 문학진 등의 작품이 표지화로 담겼다. 1980년 1~7월호 표지화를 그린 장완 화백(84)은 "당대 최고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회고할 만큼 여성동아 표지는 당시 화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운보 김기창, 김태, 김형근 화백의 표지화도 이번 전시에서 관객과 만났다.

과거 표지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

품도 원작과 함께 전시됐다.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김학진·48)와 반트(김승우·37),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37)이 재해석 작업에 참여했다. 여성동아만의 '헤리티지'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탄생시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혀보자는 취지다. 조윤진 씨는 "가장 화백 분들의 그림에 누가 되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재해석 작업을 했다"며 "유화 작품을 테이프로 잘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3일 전시 오픈에 앞서 열린 프리뷰 행사에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예술사학자 안현배 씨 등이 참석했다. 송 교수는 축사에서 "지난 90년간 여성에 주

목해 온 '여성동아'의 노력에 한 여성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완 화백도 프리뷰 현장에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근 MZ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수동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다. 특히 김기창 화백의 1970년 2월호 표지화를 진케이 작가가 재해석한 관객 참여형 작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예술사학자 안현배 씨는 "당대 여성동아가 젊은 화가에게 기회를 주고 대중과 연결되는 장을 마련한 것처럼 이번 미술전 역시 새로운 작가와 90년 역사를 가진 여성동아가 인연을 맺는 중요한 전시"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출판국 여성동아팀이 기획 단계부터 장소·작가 섭외, 전시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준비했다. 김유림 여성동아팀장은 "동아가 90년 전 여성을 위한 잡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혁신 중의 혁신이었고, 당시 젊은 작가들에게 표지화를 맡긴 것이 굉장한 용기와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경험하며 동아의 헤리티지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엔지니어 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출판국 여성동아팀 문영훈

## 제복 영웅들을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캠프' 개최

<강철부대3> 출연진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 열려



① 장애물 통과 시범을 보이고 있는 <강철부대3> 출연 대원들 ② 조교의 지도 하에 사격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 참가자 ③ 장애물 통과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 참가자

2023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부, 연천군이 함께 '제복 영웅을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 캠프'를 10월 28일 경기 연천군 전곡리 유적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은 제복 군무자를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군인들의 유격 훈련을 직접 경험해보는 강

철부대 유격 체험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강철부대 유격 체험에서는 최영재 마스터 등 채널A의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 출연진이 출동해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장애물 및 사격 등을 체험

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어린이 참가자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여러 군 관련 체험거리를 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장 인근 부대의 장병들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유격 체험 시범을 보이며 능숙한 '군인 아저씨'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후에는 제10회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개최돼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바이올리니스트 박숙련 등 클래식 연주자들이 파란 가을하늘 아래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무대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열린 '제복과 함께 YES 연천 콘서트'에서는 예나, 알리, 두자매, 송가인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

동해 흥이 가득한 가을밤을 장식했다. 동아일보는 국가보훈부,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복 근무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신강혁



# 동아일보 신문으로 다이어리를 꾸민다, DA-꾸 뉴스

### 11월 6일부터 틱톡 업로드...잘파 세대 겨냥

요즘 '잘파(Z+ALPHA) 세대'는 별다꾸에 폭 빠졌다. '별걸 다 꾸민다'는 뜻의 별다꾸는 다이어리, 헤드셋, 응원봉, 키보드 등 어떤 제품이든 자신만의 취향으로 커스터마이징해 개성을 담은 것을 말한다. 특히 아날로그 감성을 타고 스티커나 필기구로 내 일상을 표현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줄여서 '다꾸'가 인기다.

이런 트렌드에 착안한 동아일보 신문으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DA-꾸 뉴스'가 11월 6일 탄생했다. 어떻게 해야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잘파 세대가 동아일보 신문을 더 친숙하게 느낄지 고민한 끝에 떠오른 아이디어이다.

DA-꾸 뉴스는 당일 동아일보 신문 지면 기사 중 잘파 세대가 가장 관심 가질만한 소재를 선정해 제작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꾸처럼 스티커, 마스크 테이프 등을 활용해 신문 지면을 잘라 꾸미는 버전과 아이패드로 뉴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그리며 진행되는 버전까지, 총 2가지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AI 더빙을 입혀 보는 재미와 정보 전달 효과까지 동시에 잡았다.



▲ 11월 6일 처음 업로드된 DA-꾸 뉴스. 서울시의 빈대 대책 관련 소식을 다뤘다.

DA-꾸 뉴스는 매일 틱톡을 통해 업로드된다. @da\_kku\_news, 다꾸뉴스 등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주말에는 DA-꾸 뉴스의 대표 캐릭터 '얼레'가 따라 하는 최신 트렌드 챌린지 등으로 팬들과 소통한다. '얼레'는 '얼레벌레 다-꾸며벌레'라는 의미를 가진 캐릭터로 얼레벌레 워든 다 하는 성격이다. MBTI는 INTP로, 꾸미고 모으는 등의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홈프로젝트(백수)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중이다.

X-스페이스팀은 DA-꾸 뉴스를 통해 잘파 세대가 보다 친근하게 동아일보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뉴스의 틀을 깨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숏폼이나 유튜브에서 제작하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는 많지만, 아날로그로 여겨지는 신문을 가지고 아날로그 형태를 차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형식은 흔치 않다. 여기에 '얼레'는 소용형 쌍방향 뉴스를 위한 장치이다. 앞으로 제보를 콘텐츠로 풀어내는 참여형 뉴스로 확대해 잘파 세대의 뉴스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상하



▲ 동아일보 신문 지면을 잘라 꾸미는 방식으로 제작된 11월 10일자 DA-꾸 뉴스.

##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코끼리 사진관>

### 12월 7일 첫 방송...제복 영웅들의 이야기 담아



① <코끼리 사진관>의 진행을 맡은 배우 한기인(맨 오른쪽)과 아나운서 배성재(맨 왼쪽)가 첫 출연자인 박형근(왼쪽 세 번째), 장인호 원사(왼쪽 네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아나운서 배성재가 특전사 수중 구조활동에 쓰이는 장비를 착용해 보고 있다. ③ 제복 영웅들의 이야기에 몰입한 배우 한기인.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이 시대의 영웅이자 우리 이웃인 제복 근무자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12월 초 첫선을 보인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코끼리 사진관>이다. 국가보훈부와 함께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수많은 제복 영웅의 인생과 삶의 애환을 담아낸다.

<코끼리 사진관>이라는 타이틀은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에서 비롯됐다. 코끼리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를 갖추는 유일한 동물이다. 뛰어난 기억력으로 수십 년 전, 자신이 목마를 때 목을 축인 강의 위치까지 기억한다고 한다. 우리 역시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프로그램 타이틀에 담았다. 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사진관도 제목에 담았다. 태어나 첫 사진을 찍으며 인생이 시작되고 졸업, 결혼, 생일, 은퇴,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역시 사진으로 마무리된다.

우리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함께 해 온 기억의 공간인 사진관에서 제복 근무자를 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사진'을 남겨드릴 예정이다.

<코끼리 사진관>은 특전사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했지만 가장 친한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사는 박형근, 장인호 원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삼풍백화점의 마

지막 생존자를 구출한 소방관,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살인마 정남규를 검거한 경찰관 등이 출연해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잊혀지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유급한 순간, 주저 않고 몸을 던진 제복 영웅들의 이야기가 묵직한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진은 이들의 헌신을 세상에 알릴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제복 영웅들이 어떤 트라우마나 고통을 겪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모습까지 프로그램

에 고스란히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다.

MC는 배우 한기인과 아나운서 배성재가 맡았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당하되 진솔하게 시청자들에게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잊어서 안 될 영웅들의 감동 스토리는 12월 7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첫 방송된다.

콘텐츠플러스본부 크리에이션1팀 신정호



## “〈티처스〉의 마스코트, 공부기와 독기를 소개합니다”

“금쪽이 같은 강력한 IP 되길”  
채널A B&C 비주얼브랜딩팀  
인터뷰

11월 5일, 채널A 신규 프로그램 〈티처스〉가 공개됐다. 첫 방송에서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학생의 눈부신 성장기를 선보였다. 앞으로 벌어질 학생들과 선생님의 감동 여정에는 〈티처스〉의 마스코트 ‘공부기’와 ‘독기’도 함께 한다. ‘금쪽이’를 탄생시킨 채널A B&C의 비주얼브랜딩팀이 〈티처스〉 제작진과 합심해 만든 캐릭터다. 귀여움 한도초과, ‘공부기’와 ‘독기’의 탄생기를 비주얼브랜딩팀 유지상 팀장, 김신규 선임, 김수민 매니저에게 들어봤다.

‘공부기’와 ‘독기’의 탄생 과정이 궁금하다.

**김신규 선임** | 〈티처스〉는 〈금쪽같은 내 새끼〉의 제작진이 새로 선보이는 예능이다. 제작진은 첫 론칭 회의 때부터 ‘금쪽 유니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새 캐릭터에 대한 니즈가 확고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춰 ‘공부든 운동이든 노력해서 변화하는 10대’를 콘셉트로 잡고 이걸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풀어낼까 팀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스토리 라인을 차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채널A B&C 비주얼브랜딩팀 유지상 팀장(앞줄 가운데), 김신규 선임(앞줄 오른쪽), 김수민 매니저(앞줄 왼쪽)와 팀원들이 ‘공부기’와 ‘독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이훈구

캐릭터 명칭이 〈티처스〉와 맞닿아 있는데.

**김 선임** | 내부에서 공부하는 거북이라는 의미로 ‘공부기’가 어떨까 아이디어가 나왔다. 제작진이 듣더니 ‘그럼 토끼는 독기 품은 토끼, 독기로 하면 좋겠네요’라고 했다. 그렇게 ‘공부기’와 ‘독기’가 탄생했다.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

하는가.

**김 선임** | 캐릭터가 프로그램의 상징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제작진분들의 요청 사항을 최우선으로 한다.

**김수민 매니저** | 캐릭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한다. 다른 상품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굿즈 제작 등에 활용하려면 대중이 호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귀엽게 만들려고 했다.

제작진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 같은데.

**김 선임** | 온-오프라인으로 제작진과 소통하며 시안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색상이나 모양, 비율 등을 계속 베리레이션을 주면서 프로그램과 딱 맞는 캐릭터를 찾아가는 것이다.



**김 매니저** | 사실 토끼라는 캐릭터가 너무 귀엽지 않나. 이 귀여운 캐릭터에 말 그대로 독기를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했다. 눈을 까칠하게 표현하고 이빨을 드러내 독기를 표현했다. 자세히 보면 공부기의 등껍질은 가방이고, 독기의 연필은 당근 모양이다. 작은 디테일이 캐릭터에 숨결을 불어넣는 만큼 하나하나 신경 썼다.

‘공부기’와 ‘독기’가 ‘금쪽이’처럼 클 수 있을까.

**유지상 팀장** | 디자이너로서 캐릭터가 널리 알려지는 건 큰 기쁨이다. 〈티처스〉를 떠올릴 때 바로 이 캐릭터가 연상되면 좋겠다. ‘금쪽이’같은 강력한 IP가 돼서 금쪽 세계관과도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할 것이다.

앞으로 팀의 목표는 무엇인가.

**유 팀장** | 채널A B&C가 동아시아그룹의 전체적인 ‘룩’을 만든다는 책임감이 있다. 우리가 만든 〈하트시그널〉의 디자인 요소를 많은 방송 콘텐츠에서 따라하는 것처럼 이 씬에서 기준을 만드는 선두 주자가 되고 싶다. SNS라든지 디지털콘텐츠 쪽으로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을 더 넓혀보자는 목표도 세웠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 “놀라운 경험” DDMC 견학 온 탈북민들 탈북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



탈북민 출연자와 가족들이 상암동 DDMC를 방문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작 현장을 보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 녹화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만갑〉에서 생생한 북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탈북민 출연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북한의 카이스트’라 불리는 ‘리과대학’ 출신의 장혁, 장미 남매를 비롯해 북한 선전대 출신 수아 씨 그리고 북한식당 종업원 출신의 서아 씨는 가족들과 서울 마포구 상암DDMC를 견학하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세트장 밖 분주히 움직이는 카메라와 제작진의 모습, 종합편집실에서 〈금쪽같은 내 새끼〉가 편집되는 과정과 CG실에서 마법처럼 화면을 교차

하는 모습 등 온에어 되기 전 방송의 제작 과정을 생생히 들여다봤다. 더빙실에서 화제의 프로그램 〈강철부대〉의 사격 장면에 현장음과 배경음악, 효과음을 넣으며 극에 긴장감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보고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다. 견학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재밌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견학은 탈북민 등 상대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친근하게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채널A는 앞으로도 탈북민 외에도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작본부 1CP 김군래

## DAMG 수상소식



① 박형기 기자의 ‘수마에 삼켜진 강내면’ ② 송은석 기자의 ‘양팔이 없는 사이클 선수 나형운’ ③ 양희성 기자의 ‘21세기 신여성 안은미 안무가’

## 편집국 박형기 기자 등 3명 보도사진상

한국사진기자협회는 2023년 3분기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 최우수상으로 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기자의 ‘수마에 삼켜진 강내면’(7월)을 선정했다. 포토레이트 부문에는 사진부 송은석 기자의 ‘양팔이 없는 사이클 선수 나형운’(7월)과 양희성 기자의 ‘21세기 신여성 안은미 안무가’(8월)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박형기 기자는 ‘폭염 속 이수라장 된 세계 잼버리... 펼쳐지지 못한 청소년들의 꿈’(8월)으로 스토리 부문 우수상도 수상했다.



박형기 기자 송은석 기자 양희성 기자

## 채널A B&C, K디자인어워드 본상



채널A B&C가 ‘K디자인어워드’ 브랜드 부문에서 〈결혼 말고 동거〉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동거와 결혼의 대비를 ‘O, X’ 표시로 표현하고 비비드한 마젠타 컬러로 열정적인 사랑을 시각화하는 등 프로그램의 로고부터 포스터, 타이틀 등에서 콘텐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 편집국 성귀숙 차장, 한국어문상 수상



편집국 어문연구팀 성귀숙 차장(사진)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어문상 신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어문상은 한국어문자협회에서 1989년 한국어 발전에 기여한 언론 종사자 및 어문 연구자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